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희순¹⁾ · 오가실²⁾ · 신영희³⁾ · 김태임⁴⁾ · 유하나⁵⁾ · 심미경⁶⁾ · 정경화⁷⁾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5)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6) 신성대학 간호과 조교수, 7)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Kim, Hee-Soon¹⁾ · Oh, Ka-Sil²⁾ · Shin, Yeong-Hee³⁾ · Kim, Tae-Im⁴⁾
Yoo, Ha-Na⁵⁾ · Sim, Mi-Kyung⁶⁾ · Chung, Kyung-Hwa⁷⁾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4)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5) N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6)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College
7)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98 primiparas of infants aged 1-6 months who visited well baby clinics in 5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5 to June 15, 2003. **Results:** The mean score for parenting stress was 2.4 of a possible 5 and thus considered average. The score for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and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score for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of the primiparas and prenatal management. For the primiparas, social support(20%) and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9%) were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parenting stress. **Conclusions:**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and increas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primiparas in order to reduce parenting stress.

Key words : Parenting stress,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Social support, Primiparas

주요어 : 초산모, 양육스트레스, 영아지각, 사회적지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2-E00083)

교신저자 : 김희순(E-mail: khsoon@yumc.yonsei.ac.kr)

투고일: 2005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8일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Soon(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361-8152 E-mail: khsoon@yumc.yonsei.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는 핵가족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통계청(2002) 자료에 의하면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69.9%에서 1995년 79.8%, 2000년에는 82%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그 결과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오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이 핵가족화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출산 직후 아기관리에 대한 가족 내 자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학습 기회의 부족으로 출산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아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일과 자녀 양육, 집안 일이라는 다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영아모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수행해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해야 하는 심리적, 신체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양육의 책임과 더불어 재정적인 부담 증가, 여가 시간의 감소 등 수많은 생활의 변화와 관련한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김동희, 1997).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초산모의 경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경혜, 1982; Mercer, 1985).

어머니의 새로운 역할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은 영아에 대한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적 보살핌의 결핍과 부적절한 모아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Assel, Landry, Swank, Steelman, Miller-Loncar, Smith, 2002). 그러므로 이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를 포함한 부모양육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환경적 특성이 그것이다. 부모의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연령, 이전의 양육경험, 직업, 자아존중감(Younger, 1991; Umberson & Gove, 1989) 등이 있다. 아동의 특성으로는 행동적인 까다로움과 기질(Ostberg & Hagekull, 2000), 아기의 건강상태(백미례, 1990) 등이 제시되었고 환경적 특성으로는 사회적지지(Younger, 1991; Sepa, Frodi, Ludvigsson, 2004)가 확인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으로(조규영, 김영선, 어용숙, 박형숙, 전성숙, 2004;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조혜승, 1996)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아지각은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를 확인하고 인식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신생아지각에서 시작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영아가 잘 반응하는지에 관해 예민하게 느끼며, 웃거나 수유를 잘 하고 보챌 때 쉽게 달래어지는 등의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인식은 양육태도로 연결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대로 영아지각이 부정적인 경우 어머니 역할도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강경아, 김신정, 손은진, 2004; 구현영, 문영임, 1998). 그러나 신생아 지각과 부모 역할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어(문영임, 구현영, 1999) 신생아 지각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는데 국외에서도 영아의 행동적인 까다로움과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Ostberg, Hagekull, 2000)이라는 결과와, 관계가 없다는(Halpern, Brand, Malone, 2001)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완화 혹은 중재요인으로(Younger, 1991) 또는 양육스트레스의 예측요인임이 제기되었으나(Ostberg & Hagekull, 2000) 국내에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한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는 영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영아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부모특성으로 양육경험, 영아특성으로 영아의 기질, 환경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고, 국내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잘 연구되지 않은 영아지각을 포함해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정도를 확인한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2개 병원, 대전 소재 1개 병원, 대구소재 1개 병원, 전북 소재 1개 병원에서 예방접종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초산모 1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자는 아동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생 4명으로 각 병원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직접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연구도구

●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보고식 질문지로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총 3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정도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Wolke와 St James-Roberts (1987)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아 지각 도구는 영아의 반응성 8문항, 영아의 불안정한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15문항,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13문항의 총 3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최저 0점, 최고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영아의 반응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기민하여 반응적인 것을 말한다. '영아의 불안정한 기질'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불안정하지 않은 것으로 즉,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어지며 잘 밀착하는 기질을 가진 아기로 평가된다. '아기 돌보기 자신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성지각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반응성이 좋고 영아의 불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사회적지지

남편의 지지와 주위사람의 지지를 측정하였으며 두 영역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5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나 어렵게 표현된 문장을 확인해 어휘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 남편의 지지 : Taylor의 남편의 지지 척도를 일부 수정한 배정미(1996)의 도구를 기초로 아기양육과 관련된 지지만을 선정하여 총 1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주위사람의 지지 : Pascoe와 French(1990)의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지표(Maternal Social Support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된 지지를 사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지 체계의 구조 및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2이었다.

● 양육경험

양육경험은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기본적인 아기 다루기에 대한 분만 전 경험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아기를 안아본 적이 있다', '우는 아기를 달래본 적이 있다' 등의 아기 다루는 내용의 경험 유무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고 각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를 '쉬움', '보통', '어려움'의 3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최저 점수 0점, 최고 점수 30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경험이 있고 그 일이 쉬운 경험이었음을 나타낸다.

양육경험 도구 개발과정을 보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초산모 5명을 면담한 내용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고 간호학 교수 4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1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문항이나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는 각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전체 평균과 영역별 평균을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경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영아에 대한 지각,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초산모 아기의 월령은 1-2개월 62명(31.96%), 3-4개월 67명(34.54%), 5-6개월 65명(33.50%)이었다. 초산모의 평균 연령은 28.9세였고 26-35세 사이가 164명(84.53%)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인 120명(61.85%)이었다. 초산모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112명(57.73%)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55명(28.35%)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49명(76.80%)으로 대부분이었다. 직업이 없는 초산모가 117명(60.31%)이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77명(39.69%)으로 우리나라 여성 취업율 48.3%(한국여성개발원, 1995)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었다. 초산모의 56.19%(109명)가 계획된 임신을 하였고 43.81%(85명)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4)

구분	특성	실수(명)	백분율(%)	평균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24	12.37	28.86
	26-35세	164	84.53	
	36세 이상	6	3.10	
아기 연령(월령)	1-2개월	62	31.96	3.66
	3-4개월	67	34.54	
	5-6개월	65	33.50	
교육정도	중졸	5	2.58	
	고졸	69	35.57	
	대졸	110	56.70	
	대학원졸	10	5.15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	7.7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2	57.7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5	28.3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0	5.16	
	400만원 이상	2	1.03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149	76.80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	27	13.92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산다	12	6.19	
	다른 친척과 같이 산다	6	3.09	
직업	전업주부	117	60.31	
	사무직	18	9.28	
	전문직	42	21.65	
	일용직	2	1.03	
	기타	15	7.73	
임신계획	예	109	56.19	
	아니오	85	43.81	
임신 중 관리	예	118	60.82	
	아니오	76	39.18	
임신 중 관리내용 (중복응답)	영양관리	81	41.75	
	수면관리	66	34.02	
	운동관리	81	41.75	
	정서관리	85	43.81	
	성생활관리	55	28.35	
	기타관리	16	8.24	

하였다. 118명(60.82%)이 임신기간 중에 태아의 건강과 발육을 위해 특별히 조심하거나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리내용으로는 정서관리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영양관리, 운동관리, 수면관리, 성생활관리, 기타 순의 빈도를 보였다<표 1>.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총 평점 2.4점을 보였고 영역별로 구분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영역에서는 평균 2.77점,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1.95점, 아동영역에서는 2.56점을 나타내었다<표 2>. 양육스트레스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이 아이를 가진 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3.59점),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3.55점),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다'(3.46점), '아이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산다'(3.46점)로 모두 부모영역의 문항이었다.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는 '나는 아이에게 친밀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2.73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우리 아이는 성가신 일을 많이 저지른다'(2.69점),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가 못된다고 생각한다'(2.5점)의 순이었다.

아동영역에서는 '우리 아이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심하게 반응한다'(3.15점),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한다'(3.15점)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

<표 2> 초산모의 영아지각,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정도 (n=194)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의 영아지각	영아의 반응성	3.96	0.80
	영아의 불안정한 기질	3.64	0.93
	영아돌보기 자신감	3.26	0.79
	전체	3.54	0.64
양육스트레스	부모 영역	2.77	0.70
	부모자녀관계 영역	1.95	0.55
	아동 영역	2.56	0.65
	전체	2.38	0.51
사회적지지	배우자지지	3.36	0.77
	주변의 지지	2.21	0.31
	전체	2.61	0.40
양육경험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	1.61	0.83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정도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평점 6점 중 3.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지각수준을 보였다. 각 영역에서 영아의 반응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정도는 3.96점으로 자신의 영아가 약간 기민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영아의 불안정한 기

질에 대해서는 평점 3.64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 자신의 영아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며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불안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평점 3.26점으로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다<표 2>.

영아반응성 항목 중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가 내 몸에 찰싹 달라붙는다'(4.27점), '나는 아기가 잘 반응한다고 생각한다'(4.14점)가 가장 높은 지각을 보였으며 '내가 아기에게 이야기하면 아기가 알아듣는 것 같다'(3.75점)가 가장 낮은 지각을 보였다.

영아의 불안정한 기질 항목 중 '아기가 보채고 나서야 안정이 된다'(4.09점), '어제는 아기에게 젖을 먹인 후에도 종일 달래주어야 했다'(4.07점), '젖 먹고 난 후의 아기의 기분은 일정하지 않다'(4.06점)는 불안정성을 낮게 지각한 문항이었고 '아기는 쉽게 달래진다'(3.13점), '아기는 쉽게 달래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2.92점)가 가장 불안정성이 높은 문항이었다.

영아돌보기 자신감 문항 중 '나는 아기를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3.76점), '나는 아기 돌보는 일이 서툴게 느껴진다'(3.72점)가 가장 자신감이 높은 문항이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2.75점)는 가장 높은 자신감 부족을 보인 문항으로 아기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으로 어머니는 지각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정도

대상자가 인지한 사회적지지 정도는 배우자의 지지와 주위 사람의 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편의 아이 양육과 관련된 지지는 5점 척도에 평균 3.36점으로 중간 이상의 지지를 보였으며 주위사람의 지지는 4점 척도에 평균 2.21점으로 보통 정도의 지지를 보였다<표 2>.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나는 친척 수는 평균 2.7명이었고 필요시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3.2명, 필요시에 여러 시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1명이었다. 초산모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 50%가 되지 않았으며 그 중 종교모임이 81명(4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양육경험

분만 전 아기 양육 경험으로 기본적인 아기 다루기에 관한 10문항에 대해 분만 전 경험이 대상자의 45.6%에서 85.6%로 나타났다. 아기 목욕시키기가 가장 경험의 비율이 적은 항목이었다.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는 평점 3점 중 1.61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쉬운 경험으로 인식) 중간 정도의 어려운 경험으로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n=194)

특성	구분	양육스트레스(M±SD)			사회적 지지(M±SD)			
		부모영역	관계영역	아동영역	전체	남편지지	주변지지	전체
어머니연령	25세 이하	37.11(8.68)	23.47(5.19)	25.53(4.31)	84.63(13.68)	47.22(11.57)	54.00(8.26)	101.70(17.90)
	26-35세	32.82(8.32)	23.45(6.77)	28.56(7.37)	83.31(18.24)	43.21(9.60)	52.82(7.40)	95.96(14.30)
	36세 이상	30.60(4.82)	21.66(5.68)	26.66(11.59)	77.33(17.92)	46.00(13.17)	54.25(6.70)	98.25(20.61)
		F=2.49 p= .09	F= .11 p= .89	F=1.57 p= .21	F= .22 p= .80	F=1.43 p= .24	F= .25 p= .77	F=1.14 p= .32
아기연령	1-2개월	32.54(8.43)	23.47(5.23)	27.70(6.55)	82.45(15.78)	44.89(10.49)	54.42(8.37)	98.92(15.97)
	3-4개월	33.80(8.07)	23.45(5.67)	28.62(7.09)	84.27(17.07)	41.98(9.70)	52.50(6.50)	94.55(13.57)
	5-6개월	33.29(8.51)	23.30(7.32)	27.66(8.13)	82.85(19.52)	43.94(9.76)	51.92(7.27)	96.00(15.14)
		F= .28 p= .75	F= .01 p= .98	F= .28 p= .75	F= .14 p= .86	F=1.13 p= .32	F=1.45 p= .24	F=1.01 p= .36
교육수준	고졸이하	36.40(7.19)	24.68(7.09)	28.67(7.46)	88.46(16.72)	42.00(10.47)	51.13(7.10)	92.68(14.83)
	대졸이상	31.51(8.49)	22.72(6.18)	27.89(7.05)	80.61(17.65)	44.67(9.58)	54.03(7.48)	98.88(14.53)
		t=3.74 p= .00***	t=1.84 p= .06	t= .66 p= .51	t=2.73 p= .00**	t=-1.65 p= .10	t=-2.37 p= .02*	t=-2.49 p= .01*
월수입	200만원미만	34.07(8.05)	23.93(7.04)	28.15(7.32)	84.57(18.02)	43.21(10.07)	52.40(6.84)	95.71(14.13)
	200만원이상	31.50(8.96)	22.34(5.39)	28.18(6.90)	80.62(17.13)	45.07(9.63)	54.33(8.51)	98.84(16.47)
		t=1.83 p= .06	t=1.42 p= .15	t= .03 p= .97	t=1.28 p= .20	t=-1.12 p= .26	t=-1.50 p= .13	t=-1.19 p= .23
가족형태	핵가족	33.02(7.99)	23.23(6.64)	27.64(7.19)	82.48(17.44)	43.77(10.50)	52.73(7.77)	96.46(15.77)
	확대가족	34.08(9.76)	24.08(6.32)	30.08(6.92)	86.61(18.45)	43.55(7.62)	54.00(6.13)	97.43(11.29)
		t=-.66 p= .50	t=-.68 p= .49	t=-1.78 p= .07	t=-1.21 p= .22	t= .11 p= .90	t=-.87 p= .38	t=-.32 p= .74
직업	무	34.01(8.28)	24.15(6.85)	28.63(7.49)	85.38(18.64)	41.66(10.47)	51.12(7.75)	92.40(15.47)
	유	32.13(8.43)	22.36(6.01)	27.50(6.72)	80.48(15.92)	46.85(8.27)	55.79(6.05)	102.96(11.51)
		t=1.42 p= .15	t=1.73 p= .08	t= .98 p= .32	t=1.73 p= .08	t=-3.38 p= .00**	t=-4.03 p= .00***	t=-4.54 p= .00***
임신계획	유	33.30(8.50)	23.43(6.28)	28.37(7.31)	83.78(18.08)	45.16(9.85)	53.48(7.83)	98.08(15.46)
	무	33.08(8.27)	23.40(7.04)	27.78(7.06)	82.57(17.30)	41.89(9.87)	52.18(6.86)	94.73(14.10)
		t= .16 p= .87	t= .02 p= .97	t= .50 p= .61	t= .42 p= .67	t=2.09 p= .03*	t=1.07 p= .29	t=1.36 p= .17
임신관리	예	32.97(8.71)	22.30(6.42)	27.32(7.60)	81.48(18.05)	44.79(10.32)	52.50(7.70)	97.32(15.81)
	아니오	33.80(7.81)	25.21(6.48)	29.56(6.25)	86.60(16.50)	42.21(9.40)	53.78(7.07)	95.81(13.93)
		t=-.62 p= .53	t=-2.82 p= .00**	t=-1.96 p= .05	t=-2.04 p= .04*	t=1.61 p= .10	t=-1.04 p= .29	t= .59 p= .55

* p<.05 ** p<.01 *** p<.001

인식하였다<표 2>. 목욕시키기(.87점), 우는 아기 달래기(1.33 점), 아기 잠재우기(1.33)가 어려운 경험이었고 아기 얼우기 (1.88점), 아기 안기(1.95점)가 쉬운 경험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 임신관리를 안한 집단이 한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t=-2.04, p<.05) 하위영역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영역 스트 레스(t=-2.82, p<.01)가 높았다. 또한 고졸이하의 초산모가 대 졸이상의 초산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t=2.73, p<.01)가 높았

고 하위영역에서는 부모영역 스트레스(t=3.75, p<.001)가 유의 하게 높았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 초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지 각이 긍정적이었으며(t=-2.23, p<.05) 하위영역에서는 영아의 반응성(t=-2.59, p<.05)과 양육자신감(t=-1.98, p<.05)이 높았다 <표 4>.

사회적지지는 초산모가 대졸이상의 학력일 때(t=-2.49, p<.05), 직업이 있을 때(t=-4.54, p<.001) 유의하게 높았다. 하 위영역에서 주위 사람의 지지는 초산모가 대졸이상의 학력일 때(t=-2.37, p<.05)와 직업이 있을 때(t=-4.03, p<.001), 남편의 지지는 초산모가 직업이 있을 때(t=-3.38, p<.01)와 임신계획을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지각

(n=194)

특성	구분	영아에 대한 지각(M±SD)			
		영아반응성	불안정한 기질	양육자신감	전체
어머니연령	25세 이하	31.00(3.43)	50.00(13.90)	39.42(7.43)	120.42(19.76)
	26-35세	31.69(6.48)	54.96(13.98)	42.57(10.53)	127.96(23.40)
	36세 이상	33.00(12.00)	65.80(9.26)	51.75(12.47)	148.00(21.46)
		F=.21 p=.81	F=2.71 p=.07	F=2.48 p=.09	F=2.53 p=.08
아기연령	1-2개월	31.19(7.46)	57.71(11.84)	42.30(9.69)	130.59(19.65)
	3-4개월	31.87(6.53)	53.17(13.32)	41.71(10.75)	125.14(24.06)
	5-6개월	32.27(5.49)	56.05(14.34)	43.65(10.84)	130.84(23.20)
		F=.35 p=.70	F=1.49 p=.23	F=.50 p=.61	F=.99 p=.37
교육수준	고졸이하	29.93(5.96)	52.98(14.18)	40.36(9.97)	122.16(23.15)
	대졸이상	32.59(6.44)	55.67(13.90)	43.64(10.45)	130.75(22.71)
		t=-2.59 p=.01*	t=-1.17 p=.24	t=-1.98 p=.04*	t=-2.23 p=.02*
월수입	200만원미만	31.17(6.16)	53.65(14.40)	42.14(10.59)	126.38(23.27)
	200만원이상	32.27(6.59)	57.06(13.31)	43.00(10.20)	129.84(23.47)
		t=-1.04 p=.30	t=-1.41 p=.16	t=-.48 p=.63	t=-.82 p=.41
가족형태	핵가족	31.77(6.44)	55.31(13.79)	42.89(10.57)	128.50(23.42)
	확대가족	31.24(6.24)	52.54(14.82)	40.78(9.53)	124.29(22.37)
		t=.44 p=.66	t=1.03 p=.30	t=1.08 p=.28	t=.93 p=.35
직업	무	31.84(6.72)	54.93(13.04)	42.28(10.78)	128.08(23.09)
	유	31.37(5.87)	54.39(15.44)	42.66(9.78)	126.75(23.48)
		t=.47 p=.64	t=.24 p=.81	t=-.23 p=.82	t=.34 p=.73
임신계획	유	31.31(6.53)	55.21(13.55)	43.09(9.62)	128.54(21.82)
	무	32.32(6.09)	53.81(14.77)	41.52(11.39)	126.03(25.35)
		t=-1.00 p=.32	t=.62 p=.54	t=.96 p=.34	t=.64 p=.52
임신관리	예	32.18(6.42)	55.39(13.59)	43.15(9.84)	129.26(21.25)
	아니오	30.79(6.12)	53.27(14.67)	41.20(11.21)	124.94(25.77)
		t=1.38 p=.17	t=.94 p=.35	t=1.17 p=.24	t=1.12 p=.26

* p<.05

<표 5>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간의 상관관계

(n=194)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	1.00			
영아에 대한 지각	-.30***	1.00		
사회적지지	-.43***	.03	1.00	
양육경험	-.11	.18*	-.08	1.00

* p<.05, *** p<.001

했을 때(t=2.09, p<.05) 높은 지지를 보였다<표 3>.

양육경험은 초산모가 직업이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험을 보였고(t=2.73, p<.01)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양육경험 간의 상관관계

영아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r=-.30, p<.001)<표 5>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표 6> 양육스트레스, 영아지각,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n=194)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사회적지지	
	부모영역	관계영역	아동영역	영아반응성	불안정한기질	양육자신감	남편지지	주변지지
부모영역	1.00	.54***	.42***	-.11	-.16*	-.33***	-.35***	-.27**
관계영역	.54***	1.00	.55***	-.33***	-.09	-.32***	-.41***	-.22**
아동영역	.42***	.55***	1.00	-.32***	-.14	-.26**	-.42***	-.06
영아반응성	-.11	-.33***	-.32***	1.00	.03	.12	.15	.03
불안정한기질	-.16*	-.09	-.14	.03	1.00	.62***	-.01	-.02
양육자신감	-.33***	-.32***	-.26**	.12	.62***	1.00	.12	.04
남편지지	-.35***	-.41***	-.42***	.15	-.02	.12	1.00	.43**
주변지지	-.27**	-.22**	-.05	.03	-.02	.04	.43***	1.00

* p<.05 ** p<.01 *** p<.001

보면 영아의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관계영역 (r=-.33, p<.001)과 아동영역(r=-.32, p<.001)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영아의 기질이 불안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영역 (r=-.16, p<.05)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 특히 남편의 지지와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 남편의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42, p<.001)<표 6>.

양육경험과 영아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r=.18, p<.05) 양육경험이 있고 양육을 쉬운 경험으로 인식할수록 영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교육수준 및 임신관리 유무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사회적지지, 양육경험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중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사회적지지 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였고 이 중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지지로 양육스트레스의 20%를 설명하였다<표 7>. 영아지각의 하위척도인 영아의 반응성, 불안정성, 자신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영아의 반응성과 양육자신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전체 변량의 17%를 설명하였다.

<표 7>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누적 R ²	R ²	F	P
사회적지지		.20	31.81	.000*
영아에 대한 지각	.29	.09	24.77	.000*

* p<.001

논 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총 평점 2.4점을 보임으로 초산모들이 보통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평균 연령 3.6세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점 2.2 (유일영, 김동희, 2004)나 직장탁아를 하고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1998)의 스트레스 점수 2.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도 두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문제를 가진 환아보다 6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에서 부모영역의 스트레스 평점이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도 부모영역의 스트레스 문항이었다. 이런 결과는 박영숙(1991)이 어머니 자신의 성취 및 발전의 저하 등은 어머니 역할 획득 과정에서 어머니가 신생아로 인해 갖게 되는 주된 스트레스원이라고 한 것과 조규영, 김영선, 어용숙, 박형숙, 전성숙(2004)이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 등의 항목이 영아모의 가장 높은 양육스트레스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모의 스트레스원이 확인되었고 그 중 어머니 자신의 성취 및 발전의 저하에 따른 부모 영역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부모 영역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 교육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문영임, 구현영(1999)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한 것,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획득이 높다고 한 연구(이은숙, 1988)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임신관리를 한 집단이 안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여준 것은 임신관리가 태교만이 아니라 영아의 특성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정보습득을 통해 양육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고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관리는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과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향후 영아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초산모와 임신 중 관리를 하지 않은 초산모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영아지각, 사회적지지, 양육환경간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지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문영임, 구현영(1999)이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신생아 지각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이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출산 4-6주 후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에 부정적인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신감과 만족감은 순상관 관계라고 보고한 구현영, 문영임(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각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연결되며(강경아, 김신정, 손은진,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모아상호작용양상의 민감성을 높이고(김태임, 1991) 어머니와 아동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므로 적절한 어머니 역할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긍정적인 신생아 지각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머니 역할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지지의 결여와 자신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유의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는 Sepa, Frodi, Ludvigsson(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파트너의 지지는 부모의 상호작용행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부모와 영아와의 애착의 안정성과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van Bakel & Riksen-Walraven, 2002)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을 포함한 가족을 분만

후 산모교육 시에 포함시켜 사회적 지지와 아기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경험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것은 양육경험이 있어 신생아 돌보기를 자신있게 행할 때 아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며 어머니의 역할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며 개인적, 문화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하겠다.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있는 불안정한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신감과 영아의 반응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스트레스는 관련이 없으며 영아의 행동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환경적 요소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 Halpern, Brand, Malone(2001)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영은, 강양희, 박해선, 황은주, 문미영(2003)은 영아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양육스트레스가 적으면 역할수행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때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바꾸기 힘든 요인인 반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통해 키워질 수 있고 영아의 반응성 역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절히 어머니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의 반응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재 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반응성은 양육스트레스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반응성은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생아가 웃거나 수유를 잘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낀다(Bobak & Jensen, 1993). 어머니는 신생아의 이런 반응을 자신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에 민감하다. 따라서 영아의 반응성이 낮은 경우 신생아의 요구와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되고 아동이 후에 정서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Broussard, 1979). 김태임(1991)은 신생아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에 부정적인 경우보다 초기 수유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모아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여 신생아지각과 모아 상호작용과

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지각을 한 어머니에게 아기 신호에 대한 민감성, 아기의 불편감에 대한 반응 등 어머니의 행동변화를 통해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신생아 지각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를 수행하여 후기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Younger(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어머니의 양육경험, 나이와 교육수준, 배우자의 지지,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의 40%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Ostberg와 Hagekull(2000)의 연구에서도 자녀 수, 까다롭고 어려운 아이로 인식, 자녀돌보기 일의 부담, 낮은 사회적 지지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들고 있다. Sidebotham(2001)은 양육은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이며, 혼련이나 지지없이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과제로 인식되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높여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위의 지지 등 비공식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정책과 제고를 통한 공적인 지지구조 또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사회적지지 등의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는 영아의 성장 발달을 돕고 초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평점 2.4로 보통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영역의 스트레스가 평점 2.8로 가장 높았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정도는 최고 평점 6점 중 평점 3.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지각수준을 보였다. 초산모가 인지하는 사회적지지 정도에서 남편의 지지는 5점 만점에 평점 3.2로 중간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였고 주위사람의 지지는 4점 만점에 평점 2.2로 보통 정도의 지지를 보였다. 대상자의 85.8%가 양육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는 3점 만점에 1.61점으로 중간 정도로 쉬운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영아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001$).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r=-.43, p<.001$) 남편의 지지($r=-.46, p<.001$)와 주변의 지지($r=-.24, p<.01$)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경험이 있

고 경험을 쉽게 인식할수록 영아에 대한 지각은 긍정적이었다($r=.18, p<.05$).

- 양육스트레스는 임신 중 관리 유무($t=-2.04, p<.05$)와 교육 정도($t=2.73, 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t=-2.23, p<.05$) 사회적 지지는 초산모가 대졸이상의 학력이고($t=-2.49, p<.05$) 직업이 있을 때($t=-4.54, p<.001$)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영아에 대한 지각이며 이들 변수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는 29%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지각에서 불안정한 영아의 기질은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며 영아의 반응성과 양육자신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영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아기의 기질과는 관계없이 영아돌보기 자신감과 영아반응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부정적 지각을 한 어머니에게 아기 신호에 대한 민감성, 아기의 불편감에 대한 반응 등 어머니의 행동변화를 통해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신생아 지각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와 남편과 가족을 분만 후 산모교육에 포함시켜 초산모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력이 낮은 초산모가 주변의 지지 수준도 낮고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런 양육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부모그룹 등의 방법으로 지지프로그램과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의 영향요인들이 양육스트레스를 29% 설명하는 데 그쳤으므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포함해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42-E00083)

참고문헌

- 강경아, 김신정, 손은진 (2004).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및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0(3), 311-320.

- 구현영, 문영임 (1998).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대한간호학회지*, 28(4), 920-929.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 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임, 구현영 (1999). 미숙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 스트레스와 신생아 지각. *대한간호학회지*, 29(1), 174-182.
- 박영숙 (1991). 초산모의 모성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 (1993).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정미 (1996). 산후 우울의 이론적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미례 (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일영, 김동희 (2004). 아토피 피부염 환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간호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23-430.
-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 (1998). 탁아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이영은 (1991).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9(2), 206-220.
-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민감성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영, 김영선, 어용숙, 박형숙, 전성숙 (2004).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와의 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7(1), 17-26.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obak, I., & Jensen, M. (1993).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 the nurse and the family*(5th ed.). St. Louise : Mosby.
- Broussard, E. R. (1979). Assessment of the Adaptive Potential of the Mother-Infant System; The Neonatal Perceptious Inventories. *Seminars in Perinatology*, 3(1), 91-100.
- Halpern, L. F., Brand, K. L., Malone, A. F. (2001).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 Weight(VLBW) and Full-Term Infants: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 Pediatr Psychol*, 26(2), 93-104.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 Res*, 30(2), 73-77.
- Ostberg, M.,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 Clin Child Psycho*, 29(4), 615-625.
- Pascoe, J. M., & French, J. (199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aternal Social Support Index for Primiparous Mothers. *Fam med*, 22, 228-230.
- Sepa, A., Frodi, A., Ludvigsson, J. (2004). Psychosocial Correlates of Parenting Stress, Lack of Support and Lack of Confidence/Security. *Scand J Psychol*, 45(2), 169-179.
- van Bakel, H. J. A., & Riksen-Walraven, J. M. (2002). Parenting and Development of One-Year-Olds: Links with Parental, Contextual,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 Dev*, 73(1), 256-273.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Stability and Change. *Nurs Res*, 35, 68-71.
- Wolke, D., & St James-Roverts, I. (1987). *Multi-method measurements of the early parent-infant system with easy and difficult newborn*. In H.Rauh & H.C. Steinhausen (Eds.). *Psychobiology and early development*(49-70). Amsterdam: North-Holland/Elsevier.
- Umberson, D., & Gove, W. R.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 Fam Issues*, 10(4), 440-462.
- Younger, J. B. (1991). A Model of Parenting Stress. *Res Nurs Health*, 14, 197-204.